

제16대 권석환 안동문화원장 취임



3월 15일 오후 2시 안동문화공원 잔디밭에서 권석환(權石煥, 복야공파, 34세)씨가 제16대 안동문화원장에 취임했다.

어제 비가 온 후 맑고 화장한 봄 날씨에 문화공원 잔디밭에선 시내 기관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가족 친지, 유림대표, 문중대표, 종·고교 동기생,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취임식 행사는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누어 치루었는데 식전행사는 문화공원 어제와 오늘을 소개하고 나서 국민의례, 내빈소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행사에 앞서 권석환 원장은 가족, 안동문화원 임원 및 직원, 유림대표, 종·고교 동기생들을 단상위로 차례로 불러올려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

권석환 안동문화원장은 취임사에서 “안동문화원의 품격과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물 문화 축제 등 지역 특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축제를 기획하고 회원들의 능력이 적재적소에 발현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학 안동시 부

시장은 권영세 안동시장을 대신한 축사에서 “1966년 설립된 안동문화원은 그동안 지역축제, 민속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소통의 공간으로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안동 문화를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라태훈 경북도문화원연합회장, 박원갑 경북향교재단이사장이 격려사를, 김활동 국회의원이 축전을 보내왔다.

권석환 신임 안동문화원장은 안동고,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각각 졸업하고 안동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35년간 중·고교 교사로 근무했으며 (사)전례문화보존회 초대회장, 경북청년유도회 회장을 역임,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24호 안동자전놀이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권석환 문화원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타월 1장과 보온통 1개씩을 선물로 전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아이에스동서 권혁운 회장, 산불 피해 구호 성금 2억원 전달

아이에스동서 권혁운 회장(회장 권혁운)가 경북 울진·강원 삼척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과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

권혁운 회장은 “산불 진화에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갑작스런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분들께도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에스동서는 지난해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해 성금 1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를 통해 전달한 바 있으며, 코로나 19 방역 및 결식아동 긴급 지원, 학대아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권 회장은 2016년 140억 원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재)문암장학문화재단과 함께 장학금 전달사업, 결식아동 지원사업, 인재육성 지원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대피해 아동지원사업, 범죄 피해아동 예방 및 지원사업 등 지금까지 400억 원이 넘는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과 함께 기업의 혁신성을 이끈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센서’에서 ESG경영대상(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주택산업 발전 및 국민주거복지 기여,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2021년 주택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단독으로 수여 받았다.

동강 권오창 화백 출판기념 ‘전통 어린이 복식 회화전’



동강(東江) 권오창(權五昌, 동강 궁중 회화연구소 대표) 화백이 ‘전통 어린이 복식’ 출판을 기념하여 ‘전통 어린이 복식 회화전’을 3월 2일(수)부터 3월 8일(화)까지 인사동길 인사아트플라자 갤러리 1층 그랜드관에서 개최했다. 화백은 평생 온갖 게 우리나라 전통 궁중회화에 매진해 오며 1990년 잠실 롯데미술관에서 조선시대 복식과 초상전을 열었고, 1999년에는 덕수궁 유물전시관에서 조선시대 궁중복식 회화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화백은 한 평생 비단에 채색한 전통화법으로 단종대왕 어진(2021), 장위공 서희 장군(2015), 삼봉 정도전(1994), 백제 26대 성왕 어진 등 이 땅의 역사적인 인물들의 초상화를 그려왔다. 더불어 기억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 복식을 그림으로 재현하는 작업도 겸하고 있다. 사라져가는 전통 복식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재현한 “전통 어린이 복식화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 책을 준비하며 400여 년 된 미이라 곁에 함께 묻힌 6살 미이라의 중치막 옷가지를 드고, 씻어 바느질 기법까지 재현한 옷을 박물관에서 본 적도 있다고 한다.

‘어린이’는 영원한 미이라는 생각에 여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어린이 옷을 한 자리에 모았다. 입혀 보고,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 그런 작품이다. 이 땅의 어머니들은 격식에 얹매임 없이 색을 고르고, 아름다운 무늬와 글자를 한 땜, 한 땜 바느질해서 수를 놓았다.

하나하나 독특하고, 개성이 있다. 앞모습 뜯지 않게 뒷모습도 정감이 넘친다. 보고만 있어도 따뜻한 토끼털로 만든 불끼, 요리조리 꾸며 끊은 종종머리, 그 끝에 묶은 예쁜 흥색의 맹기머리, 머리 손질을 끝내고 얹은 벳씨댕기, 남은 자투리 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자르고, 깊고, 이은 조형

감, 누비 저고리 치마, 아기 업고 두른 포데옷도 있다. 화백은 책이 아름다움을 넘어 우리나라 어린이 복식 연구에 또 하나의 자료로 남기를 바란다고 했다.

화백은 작년부터 충장공 권율을 도원수

영장을 그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

며,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상반기 중에는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국장 권행완

권경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권경숙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권경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의 대구 201호 회원이 됐다. 기초의원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사례는 권경숙 의장이 처음이다. 권경숙 의장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서로 함께 힘을 모으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며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많

은 분들이 이웃돕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경숙 의장은 이외에도 지역 라이온스클럽에서 지난 15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오며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왔다. 기초의원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진정한 대구인이자 자랑스러운 안동권문이다.

안동권씨 대종회 회관 사무실과 원룸 임대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안동권씨 대종회 회관의 사무실과 원룸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여 안내하오니 입주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대종회에 소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회관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용두동 102-196)

※ 제기동역 6번 출구 바로 앞 (도보 1분)

◎ 연락처 :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

◎ 회관 공실 임대 안내

임대할 부분	면적	보증금	월임대료
사무실 201호	30㎡ (약 9평)	1천만원	70만원
원룸 306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1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2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3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4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6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옥탑방	18㎡ (약 5평)	3백만원	50만원

안동권씨 대종회

동정

▲권동현 세명대학교 부총장이 지난 3월 2일 세명대 제10대 총장에 취임했다. 권동현 신임 총장은 세명대 설립자인 고 권영우(대원여객 창업주·KD운송그룹 회장) 전 국회의원의 아들로, 세명대 기획실장과 경영부총장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한국외대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경영학 석사와 교육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임기는 오는 3월부터 4년간이다.

▲권금록 교수(경희대학교병원)가 (KADR)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권 교수는 “KADR이 치의학 분야 임상과 기초를 아우르는 통합 학회라는 특성을 살려, 학문후속세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상과 연구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는 학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융합치의학 심포지엄을 정례화해 치과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태우는 방침도 표명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울릉군지부 권필순회장(사진 오른쪽)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권재경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20년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위한 지역사회 여론형성과 지역사회에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의 권승현 시의원이 민주평통의장 대표 표창을 수상했다. 권승현 위원은 민주평통 보령시협의회 여성위원장이자 보령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평화통일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권승현 위원은 청년위원회들과 백두에서 한라까지 운동에도 동참했다.

▲권대근 교수가 지난 1월 28일 경북대학교 교과병원 제3대 원장에 취임했다. 권 신임 원장은 1992년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경북대학교 교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로 재직했다. 그간 진료처장, 구강악안면외과 과장, 치과대학 교수부학장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 또

▲권구연 전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사무국장이 제5대 경기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장에 취임했다. 경기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정보 제공 및 청소년 지원봉사, 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을 운영하는 경기도 산하기관이다. 권 센터장은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권경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제5대 경기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장에 취임했다. 경기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정보 제공 및 청소년 지원봉사, 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을 운영하는 경기도 산하기관이다. 권 센터장은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